은혜와 진리 소식

2025년 12월 28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제1952호 1982년 8월 8일 창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저희 부부가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도록 섭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이 명 숙 -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공산 사회주의 체제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5년에 친척의 초청으로 한국에 들어와 몇 년 동안 일만 하다가 2011년도에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살면서 생활을 위해 오로지 일만 하다 보니 몸과 마음이 매우 지치고 사는 것이 무척 힘에 겨웠습니다. 그럴 때 지인의 전도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6) 하나님의 구속하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저의 마음과 몸이 편안하고 건강해졌습니다.

2014년에 경기도 군포시의 산본신도시로 이사하여 다닐 교회를 찾던 중에 구역장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아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은혜와 진리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회주의 공산당 체제하의 중국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복받은 인생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을 하노라면 제 눈에서 하염없이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흐릅니다. 그 이듬해에 저의 남편도 교회에 나와 결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의지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역장님을 따라 예배며 기도회며 교회의 성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말씀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로 하루하루 저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던 신앙의 자유의 그 소중한 가치를 알게 되었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잘사는 나라가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2018년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은혜와진리교회의 구역장이 되었습니다. 구역장 직분을 받을 때, 존귀한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리는 한편으로 이 직임을 과연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항상 성령 충만하여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항상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거리로 나가 전도했던 때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총력전도기간에 수도권 전철 1호선과 4호선의 환승역인 금정역으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에 가자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한참을 서성이다가, 의자에 혼자 앉아 계시는 나이 든 분에게 다가가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는, 고맙다며 선뜻 저를 따라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때의 제 마음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에 벅차올랐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전도의 열매를 거둔 그 기쁨과 감격은 저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도와주셔서 마침내 2019년에 중국에 계신 연로한 저의 시아버님을 한국으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님을 교회로 인도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또 친구분들도 많이 교회로 인도하였는데, 모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중국에서 직장에 다니는 저의 딸도 자주 한국에 출장을 오고 그때마다 꼭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이처럼 저희 가족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자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남성봉사연합회 교통부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겨 봉사하는 남편은 현장의 일이 끝나기도 전에 그때그때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깁니다. 저는 갑상샘암, 쿠싱증후군, 목디스크 등 여러 가지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다 완치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지금 중국선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중국에도 전도의 문이 열리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가복음 16:15)는 말씀을 따라 중국에 사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힘껏 복음을 전하겠다는 소망과 기대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이 소원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은혜와 진리교회**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수원 : 수원시팔달구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031-684-3731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 30 T. 042-471-3736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율전 : 수원시 장안구 하률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 054-772-7867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3권 (6단원 : 믿음의 사람들)

(제30과) 홍수 심판과 노아의 믿음

- **본문 :** 창세기 6:9-22
- **요절 :**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창 7:1)
- **찬송 :** 344장(새찬송가 545장), 399장(새찬송가 546장)

창세기 6장에 보면, 인류가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 크게 번성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인류 문명이 발전하던 때로서 사람들은 물질적인 번영을 구가하였으나, 신앙과 윤리에 있어서는 극도로 타락했던 때였습니다. 먼저 신앙적인 면을 살펴보면, 그 때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켜왔던 셋의 후손들이 불신앙으로 살아온 가인의 후손들과 사귀며 통혼함으로써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치고 세속화되었습니다. 또 윤리적인 면에서 사람들은 항상 악한 생각을 가지고 강포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을 보신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사람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온 인류가 멸망을 당하는 마당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과연 어떤 신앙의 인물이길래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것일까요?

1.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노아에 대하여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창 6:9)라고 평하였습니다.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노아의 신앙과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함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음을, '완전한 자'라 함은 그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생활을 하였음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함은 그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와 같이 극도로 타락하고 인본주의가 팽배했던 시대에서 홀로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며 자기들과 달리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를 핍박하고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동분서주하면서 자기들의 영혼에 대하여는 무관심한 것을 볼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마 24:37~39)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과연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의 신앙과 그 인격을 본받아 세상을 이기며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며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니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노아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주의 크기를 우리가 사용하는 치수로 환산하면 길이가 약 170미터요, 폭이 약 28미터요, 높이가 약 17미터에 달하였습니다. 또 잣나무로 방주를 짓되 3층으로 나누고 층마다 여러 개의 방을 만들고, 방주의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대한 방주를 짓도록 명하신 것은 그 안에 노아와 그의 일곱 식구와 각종 동물의 한 쌍씩을 수용하고 또 그들이 먹을 양식을 실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쾌청한 날씨가 연속되는 데도 홍수 심판을 경고하며 방주 짓기에 여념이 없는 노아를 보고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오직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묵묵히 순종함으로 방주를 완성하였을 뿐 아니라, 그와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히 11:7)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우리의 구주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홍수로 인해 모든 기식있는 생물이 멸망을 당하는 마당에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함을 받았듯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행 4:12).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참여한 우리는 아직도 죄악 가운데 표류하는 뭇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 노아는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년을 넘게 계속된 대홍수의 재앙이 지난 후에, 물기가 마른 지면에 발을 내딛은 노아가 맨 처음 행한 일은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창 8:20)라는 말씀이 이 사실을 말해 줍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샘을 파고, 또 그 외에도 시급히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었겠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아의 태도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던 일에만 몰두하던 타락한 당시의 사람들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감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무지개를 증거로 삼아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치 않으시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창 9:1,13).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장차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의 신앙이 식어지고 세속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한 세대에서 믿음을 굳게 지켰던 노아의 신앙을 본받아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과 믿음을 지키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